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동동 344-2) 한광대학교병원 5층 501호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8년 10월 31일 수요일 (음 9월 23일) 제2159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세계 최대규모 3GW급 발전단지 구축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

문 대통령·송 지사도 참석
수상 태양광 준공식과 병행
군산 인근해역 해상풍력 조성
연구인프라 구축 등 지원
새만금 내부 개발도 '탄력'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이 30일 군산 유수지 수상태양광부지에서 열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과 송하진 지사가 악수를 나누고 있다.

군산2국가산업단지 내 유수지에 피앤디솔라(공통대표 나정석)가 국내 최대 규모로 조성한 수상 태양광 준공식이 열렸다.

30일 준공식과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을 겸한 이번 행사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했다.

새만금개발청(청장 이철우)과 전라북도(도지사 송하진)가 주관한 비전 선포식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새만금을 '세계 최고의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로 조성해 재생에너지 산업을 선점하고 선도하겠다는 비전을 발표했다. (관련기사 6면)

재생에너지 시장창출을 위해 새만금 내륙에 세계 최대 규모인 3GW급 태양광 발전단지와 군산 인근 해역에 GW급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하고, 수상태양광과 해상풍력 제조산업단지를 건설해 물류공급을 위한 해상풍력 배후항만 구축, 제조기업 유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연구인프라 구축, 기술사업화, 인력양성을 지원하여 새만금이 재생에너지의 혁신기

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새만금 개발 연계, 송변전계통 구축, 투자유치 촉진, 지역주민참여 등 다양한 방식으로 태양광 발전사업을 진행하고 클러스터 구축을 추진함으로써 새만금을 세계적인 재생에너지 산업의 메카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새만금개발청의 사업계획 발표 후에

는,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송변전계통 조기 구축 등을 위해 관계기관 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참여 기관은 국무조정실,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새만금개발청, 전라북도,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한국수력원자력, 새만금개발공사 등이 다.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은 새만금에

서 가시적으로 추진되는 첫 사업으로서 새만금 개발의 돌파구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번 비전선포를 통해 세계적 규모의 재생에너지 클러스터가 조성되면 연관 기업의 투자가 활성화되고 발전 수익 일부는 용지조성 등에 재투자함으로써 새만금 내부 개발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군산=김정훈 기자

새만금개발공사 공식 출범... 본격 업무 시작

전북도와 국토교통부는 30일 오후 2시 새만금 현장에 위치한 새만금개발공사 사옥에서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행사를 개최했다. (관련사진 2면)

이날 행사에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비롯해 이형규 새만금위원회 민간위원장, 송하진 전북도지사, 이철우 새만금개발청장, 이춘석 의원, 김관영 의원, 안호영 의원, 김중희 의원, 김광수 의원 등이 참석했다.

새만금개발공사는 지난달 21일 설립

개발청도 연말 이전으로

등기를 마치고 이달부터 추가직원 채용, 내규 제정 등 관련업무를 진행해 오고 있다.

공사는 1차 채용된 직원 이외의 잔여직원(53명)을 조속히 채용할 계획이다. 새만금개발청이 12월 같은 장소에 이전하게 되면 본격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간 사업시행 주체가 없어 지지부진했던 새만금 개발이 공사가 설립되면서 공이 속도감 있게 주도하고 민간이 후속투자를 이어나갈 수 있는 구조를 갖추게 됐다"고 말했다.

공사는 공공주도 매립과 개발, 도시조성 사업을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투자유치, 관광레저, 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그 수익을 재원으로 후속매립을 추

진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연관산업 유치,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력과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1조1500억원(현금 500억원, 현물 1조1000억원)을 출자해 공사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했고 향후 추가출자를 통해 공공주도 매립이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공유수면 매립면허권을 현물로 출자해 공유수면 활용을 위한 관계기관 동의절차 등이 생략돼 용이하게 투자를 유치하고 사업을 빠르게 시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 /김진성 기자

김동원 전북대 총장 당선인의 한마디

“대학 경쟁력, 해답은 재능”

전북대학교 차기 총장 1순위 임용후보자로 선출된 김동원(59, 공과대학 산업정보시스템·사건) 교수가 30일 진수당 3층 소회의실에서 당선 소감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김동원 당선자는 발전지원재단을 키우고 전문 T/F팀을 상설팀으로 구성해 연구비 수주를 늘리는 등 앞으로 전북대학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말했다.



“현재 건물 수·재정면에서 많은 성장 거듭해와 이젠 질적 성장 해야할 때 대학 발전지원재단 육성 연구비 수주 늘릴 것”

다. 이밖에 전북 청년들이 내가 태어나 자란 곳에서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에 전북도, 정부, 국회를 찾아 협조를 구하며, “세계적 기업가는 만들어진다”는 신념하에 인재 찾는데 70~80 소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번 선거는 힘들었다”고 말했다.

김 당선인은 1차 선거결과를 보고 부족하지만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김 당선자는 “현재 전북대학교는 건물 수나 재정면에서 양적으로 많은 성장을 했다”며, “이젠 질적으로 성장할 때라”며, 전북대학교가 취업률 하락으로 이어진 상황에서 다양한 교수법을 제공, 개인의 재능 및 개성에 맞게 학습해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학생들의 정보 부족으로 인한 피해를 없애기 위해 해마다 10% 정도 해외교환학생으로 파견하고, 풀기세포를 만들어 월드 클래스 기업 나아가 매출대비 시장 가치가 100배 넘는 유턴 기업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23~30대 청년인재 양성에 적극 나설 것을 약속했다.

아울러 국내의 우수기관에 파견해 강한 인재로 만드는데 모든 재정과 인력을 투입하겠다고 했

소감을 밝혔다.

박근혜 정부 때 추락했던 총장 직선제로 인한 학내 투머, 후보자간 과열, 준비 미흡 등으로 어려움을 호소했다. 또한 후보자간 고소·고발로 인한 선거 혼란도 지적했다.

이에 이남호 총장과의 통화에서 고소·고발도 취하하기로 했다며 조속한 시일 내 학내 정상화를 약속했다.

한편 김동원 당선자는 공약에서 ‘단임제’·‘분권’을 슬로건으로 밝혔 듯 모든 예산이 한곳에 집중돼 폐해가 심하다며 ‘분권’을 통해 예산, 인사, 재정 등을 나눠야 한다며, 학생회, 국제교류 업무를 확대하는 등의 청사진도 밝혔다.

/장은성 기자

매일 INDEX

3면 - 대법원 “일본 징용 피해자에 배상하라”... 13년 재판 끝 확정

가스안전은 가족사랑입니다. 축! 전주매일 창간

고객의 꿈과 행복을 지키는 사람들

전북도시가스는 당신의 가스안전을 위해 24시간 깨어 있습니다.

굴착신고는 굴착시공 전 EOCS 접수로 1644-0001

굴착공사 신고 절차

1. 굴착공사계획 신고 (www.eocs.co.kr, 1644-0001, www.eocs.co.kr)
2. 접수번호 발급
3. 가스배관 및 굴착현장 표시
4. 굴착공사개시 통보
5. 굴착공사 시행

전북도시가스(주) 전북 전주서덕진구 장재안길 31 / 전화 063)240-7700 www.jbcitygas.co.kr 도시가스요금경감신청안내

전북도시가스(주)에서는 사회적배려대상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에 요금을 경감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북도시가스 홈페이지를 참조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 240-7755-6)